

전남 '1인 소방서' 41곳 ... '골든타임' 속수무책

문 잠그고 장비 챙기느라 출동 지연...대형화재 우려 해남소방서 출동시간 최하위권 등 대책 마련 시급

“안전장구를 착용할 시간도 없이 출동할 때도 많아요”

지난 18일 오후 2시, 해남군 황산면 '황산 119 지역대' A(43)소방관은 혼자서 출동했다가 사무실로 복귀, 서둘러 사무실 문을 열었다. A 소방관은 화재 신고 출동을 하게 되면 방화복을 챙겨 입고 사무실 문을 잠근 뒤 소방차를 몰고 가 혼자서 불을 끄는 '슈퍼맨' 역할을 해야 한다.

황산 119 지역대 소방관은 A씨 등 모두 3명, 하지만 3교대로 근무하면서 웬만하면 혼자 출동하는 게 일반화됐다.

해남군 황산면(103.18km)에 2865 가구, 주민 6038명이 거주하면서 올해만 지난 8월까지 화재 신고 81건, 구조 신고는 24건이 접수됐지만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대원은 단 한 명뿐이다.

지난 1월에는 마곡저리장 화재 현장에 출동, 혼자서 엔진펌프를 돌리고 소방호스를 편 뒤 물 펌프를 켜 줄 통료가 없었어 다시 소방차로 되돌아와 물펌프를 작동시킨 뒤에야 진화작업을 해야 했다. 그나마 정작 자신을 지켜 줄 안전장비는 제대로 착용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황산면 뿐 아니다.

2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이 근무하는 지역소방대는 전국에 81개 소로, 전남에만 절반이 넘는 41곳(50.6%)이 몰려있다. 강원(21곳·25.9%) 경북(15곳·18.5%)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

젊은층이 대부분 빠져나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자칫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혼자 근무하는 1인 소방서의 경우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자연스레 늦어질 수밖에 없다.

황산지역대가 소속된 해남소방서의 평균 출동시간은 전국 198개 소방서 중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지난 ▲2012년 10분4초(11번째) ▲2013년 12분50초(2번째) 등으로 수차례로라면 초기에 진압,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는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출동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사고가 접수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인력도 없는 형편이다.

지역 소방관 A씨는 “신고를 받으면 사무실 문을 잠그고 진입 장비 챙기다보면 정작 소방관 안전장비는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한 채 출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구조를 위해 건물 안에 진입이라도 해야 할 경우 맨몸으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장비도 열악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적

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

1인 지역대 소방관의 경우 만능도끼·망치 등 휴대하기 편한 구조장비만 챙기는 게 일반적으로, 유압구조장비, 동력절단기 등은 장비가 있어도 혼자 쓰기 어려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이 적지 않은 전남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효율적 운영'이라는 행정 편의주의가 지역민들의 피해 위험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전남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소방인력 부족에 대해 “전남지역에 소방인력이 부족하지만 전남 전체지역을 운용해야하는 만큼 현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유치원·초·중·고 97%가 '석면 학교'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97%에 이르는 1421개교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학교건축물 석면관리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기준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1467개 학교 가운데 97%인 1421개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지역과 함께 석면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충남(9%), 경북(9%), 부산·강원·경남(9%), 대전(90%), 충북(87%) 순이었다.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481개 학교 가운데 86%인 412개 학교 건물에도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 '거북이 경찰'

5개 경찰서 112 출동

골든타임 지키는 곳 全無

112 신고 뒤 3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골든 타임'을 지키는 광주지역 경찰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112 출동 신고시스템을 강화하는가 하면, 갓신명 경찰정장이 취임 뒤 “형사·교통 등 모든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기운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경찰서의 경우 올 들어 7월 말까지 광주지역에서 112 신고 접수 뒤 범죄 현장에 도착한 평균 시간은 3분18초로 경찰이 목표로 한 '골든 타임(3분)'을 지키지 못했다. 전남 지역 경찰서의 평균 도착시간은 3분57초에 달했다.

동부경찰은 평균 도착 시간이 3분30초로 5개 경찰서 중 가장 늦은 '거북이 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북부 3분20초 ▲서부 3분17초 ▲남부 3분16초 ▲광산 3분10초 순으로 조사됐다.

동부경찰은 지난 2012년 평균 도착시간이 2분40초, 지난해 3분6초로 5개 경찰서 중 가장 빨랐지만 올해는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상반기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사 등 금남로를 통제하고 열리는 집회·행사가 많이 뿔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군 지역으로 광주에 비해 출동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전남 21개 경찰서에서는 나주경찰(4분54초)이 가장 느렸다. 나주의 경우 진도경찰(2분48초)에 비해 무려 2분6초나 느려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평균 도착시간이 2분대인 경찰은 진도뿐이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일산으로 간 조대여고생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4 행복교육박람회'에 참가한 조선대여자고등학교(교장 이재연) 과학동아리 '바이오가든'과 '물음표'(물리를 음미하고 표현하다) 회원들이 방문객들에게 '스트링아트 만들기'를 도와주고 있다.

/일산=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운 지갑 우체통에 넣었는데 절도범?

확 막힌 경찰 수사 논란

20대 여성 억울함 호소

있는 우체통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커피를 주문한 뒤 앉아 있던 자리에 지갑을 놓아둔 채 2층으로 올라갔고 뒤에야 자리에 앉은 A 씨 등 2명이 발견, 카페에서 나가면서 우체통에 넣었다. 김씨는 카페 2층에서 5시간 가까이 있었지만 지갑 분실 사실을

을 A씨가 떠난 뒤에야 알게 됐다. 경찰은 김씨 신고를 받고 카페 CCTV를 분석, 신원을 확인해 지난 17일 A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이 있어 우체통에 넣으면 주인을 찾아 줄 것 같았다”는 A씨 설명과 분실했던 지갑이 이미 김씨에게 되돌아간 사실을 알았지만 “행사 입금이 불가피하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A씨가 112에 신고하거나 지갑을 카페

에 맡기지 않고 자리를 뜬 것 자체로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은 어쩔 수 없다”고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과기록이 없고 지갑이 그대로 회수된 점을 감안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형사에만 치우쳐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남의 지갑 찾아주려던 대학원생을 절도 혐의를 씌운 데 따른 논란도 있다. /백희준기자 bhj@

합법노조 지위 유지한 채 전교조 항소심 받는다

정부로부터 범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범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여친과 다투다 모텔 불 지른 20대

○-여친친구와 모텔 끝에 격분, 투숙한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는 등 촌극을 연출.

○-2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장모(22)씨는 전날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H모텔에서 여친친구 김모(20)씨가 “애 아직도 옛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느냐”고 따지자 인근 주유소로 달려가 휘발유(1ℓ)를 사온 뒤 모텔에 불을 붙였다는 것.

○-정작 다툼이 처음자 갑작 놀란 장씨는 이불을 덮어 스스로 불을 끄고 달아났다가 부모를 통해 경찰에 “조만간 내 발로 자수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뒤늦게 후회. /백희준기자 bhj@



○-여친친구와 모텔 끝에 격분, 투숙한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는 등 촌극을 연출.

○-2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장모(22)씨는 전날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H모텔에서 여친친구 김모(20)씨가 “애 아직도 옛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느냐”고 따지자 인근 주유소로 달려가 휘발유(1ℓ)를 사온 뒤 모텔에 불을 붙였다는 것.

○-정작 다툼이 처음자 갑작 놀란 장씨는 이불을 덮어 스스로 불을 끄고 달아났다가 부모를 통해 경찰에 “조만간 내 발로 자수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뒤늦게 후회. /백희준기자 bhj@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2669	1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286 334㎡	대	5,410,800	채외건물매각제 5,410,800원
	2	보성군 득량면 예달리 산84 496㎡	임야	307,520	
	3	동소 산85 893㎡	임야	553,660	
	4	동소 산86 39967㎡	임야	28,776,240	
	5	동소 산87 496㎡	임야	357,120	
	6	동소 산88 11603㎡	임야	17,404,500	
	7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1266-12 3054㎡	답	66,525,8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8	동소 1266-13 2444㎡	답	66,525,800	독자적증명요
2014타경 3433	1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16-1 237㎡	전	263,328,000	일괄매각
	2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37-1 223㎡	임야	113,724,000	일괄매각, 경계지
	3	동소 437-3 245㎡	임야	113,724,000	절권근연고미상분묘소재
2014타경 3655	1	광양시 봉암면 조령리 294 589㎡	답	180,038,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수목가격포함
	2	동소 295 1104㎡	답	180,038,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3655	1	동소 296-2 496㎡ [창고제외]	답	188,50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광양시 봉암면 신흥리207-1 1009㎡ [팬솔물리리격포함, 금호씨씨부지일부로서사용중]	답	188,504,000	
2014타경 4979	1	동소 207-2 549㎡	하천	29,76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	동소 207-3 168㎡	답	29,760,000	
2014타경 6418	1	광양시 황곡동 735-7 1818㎡ [공유자고임원지분 [1818본의496]전부]	전	12,957,8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49 1934㎡	전	12,957,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7626	1	여수시 직량동 산123 5752㎡ [공유자김순진 지분5752본의1884전부]	임야	67,824,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1347 717㎡ [과수목]	답	12,18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8391	1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87-17 1082㎡ [과수]	전	11,92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87-17 1082㎡ [과수]	전	11,92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8506	1	여수시 덕흥동 1717 159㎡	대	45,234,000	과수목 [유실수] 포함평가
	2	여수시 광무동 77-18 109㎡	대	57,770,00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4타경 3549	1	순천시 별미길 18, 4층 1호 17.5175㎡	근린시설	19,500,000	
	2	순천시 별미길 18, 4층 3호 13.09㎡	근린시설	19,500,000	
	3	순천시 별미길 18, 4층 4호 14.4㎡	근린시설	13,800,000	
	4	순천시 별미길 18, 4층 6호 19.58㎡	근린시설	13,800,000	
	5	순천시 별미길 18, 4층 7호 19.36㎡	근린시설	22,000,000	
	6	순천시 별미길 18, 4층 8호 12.19㎡	근린시설	22,000,000	
	7	순천시 별미길 18, 4층 12호 23.8㎡	근린시설	13,500,000	
	8	순천시 별미길 18, 4층 20호 10.26㎡	근린시설	25,600,000	
	9	순천시 별미길 18, 4층 21호 9.690㎡	근린시설	11,700,000	
2014타경 8179	1	광양시 옥곡면 신곡리 1313-1 170㎡	대	212,082,200	일괄매각, 체외인건물포함, 2014타경8612[중복]
	2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75 1층94.50㎡ 2층 17.7㎡	대	212,082,200	

[기타]

2014타경 8391	1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1561-1 433㎡	답	1,388,000	일괄매각
		동소 1562-1 261㎡ [물건번호1:1561-1, 1562-1현황상도로일부구거등으로이름]	답	1,388,000	

- 고령인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농지분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기대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이 불가 할 때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동등한 매각대금에 산정한다.
 2. 공유자의 무단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서 우선순위를 행사할 수 없다.
- 매각일시 : 2014. 10. 6. [월] 10:00
- 매각결정일시 : 2014. 10. 13. [월] 16: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방명
- 매각방법
 1. 입찰방명제 비차별 기밀입찰방명제 사면방명,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률 등을 기재하고 밀봉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발행의 지출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유약계약을 체결한 문서(일괄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제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후의 책임이 중도반납 금리로 계약금 실시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은 최고기대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차별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기대수신고인과 지분취득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은 입찰결과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1.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2.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실시한다. 다만, 매각허가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허가 실시하여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1.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연금,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없이 가압류가 말소등기를 하여서는 동등상 지급과제를 납부한 후 동등상영수권인 및 동등상영수권등 지위를 취득하고, 국민주거주택금융진흥원 기탁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등상 영수권인 및 동등상 영수권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담보권자는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매각의 목적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2년 주된목적전신고명을 받고 그 구조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업 자를동등상영수권인 입찰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동등상영수권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일반인등의 청약에 응하기 위하여 매각일 1주일 전부터 매각방명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에 비치하여 청약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방명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명제 내역은 입찰방명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불응한다면 신용불량 등정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있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집행한 후입찰금 반드시 입찰방명 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소유권이전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6. 공공인 물건으로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일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7. 신청한 공고하는 출원인 최초의 매각일일에 동등상 영수권인, 출생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용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방명에 처한 매각방명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민원명령장부신청]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여야 하지 아니한 것을 국민명령을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즉시 우리 법원에 연락하여 사실확인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열람에 관하여는 반드시 방명에 의해서 게시된 매각방명명세서에 기재된 매각방명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정준**